

홈앤아이클린케어·동아참메드 업무협약

동아참메드, 홈앤아이클린케어의 프리미엄 멸균소독 보급키로

각종 세균,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사스(SARS), 메르스(MERS)에 이어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소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병원 수술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살균소독 전문회사인 (주)홈앤아이클린케어와 멸균소독장비 판매사인 (주)동아참메드는 프리미엄 멸균소독 보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고수준의 살균소독이 필요한 곳에 멸균소독장비와 소독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홈앤아이클린케어 방역소독 강진수 총괄담당은 신생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RS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를 완벽히 제거하고자 기준 실시하는 살균소독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완벽한 멸균소독을 제공하기 위해 (주)동아참메드의 ED스프레이(EDSpray)와 ED와입스(ED Wipes)의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ED스프레이(EDSpray)는 고농도(과산화수소30%)의 과산화수소 증기를 이용한 기존 멸균소독기와 달리 저농도(과산화수고6%)의 과산화수소를 마른안개(Dry Fog)타입의 미세한 입자로 분사,



(주)홈앤아이클린케어 강진수(우) 총괄담당과 (주)동아참메드 김영관리사업부 임명현(좌) 부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아포를 99.9999% 사멸시키는 멸균소독장비이다. 또 작업 후 분사된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돼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일반 살균소독과는 다르게 생물학적 지표(B.I., Biological Indicator)를 이용해 바로 소독의 상태를 검증할 수 있어 병원 및 관련기관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환경표면소독을 위해 간편하게 사용하는 ED와입스(ED Wipes)는 환경소독분야에서 국내 1위 브랜드 인지도로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

료용 소독 티슈이다.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하고 빠른 시간안에 소독의 상태를 검증 할 수 있는 ED스프레이(EDSpray)와 김영병 예방용 환경표면 소독 티슈 ED와입스(ED Wipes)는 부족한 살균소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완벽한 소독을 제공할 수 있어 살균소독을 실시하는 많은 방역업체들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코로나이후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성 질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요와 활용도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연 대표기자>

중구자원순환 교육, 동국대 수업 과정으로 활용

중구,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16시간 양성교육 수료생 활동 지원

서울 중구가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을 실천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수료생들은 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자원순환 실천 활동과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종이팩 자원순환과 재생종이 만들기 체험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 △소재별 재활용 체계 및 분리배출 방법 △중구 재활용 선별장

견학 등이다. 총 8주, 16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이 있는 중구민 또는 중구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이는 오는 4월 23일(화)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올해는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의 일부가 동국대 학생들의 교육과정으로 활용된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한

과정이다.

동국대학교 '소셜벤처 창업' 수강생 40여명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들으며 자원순환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수업 과정에는 중구의 쓰레기 연구소 '새롬'을 견학하고 자원순환, 쓰레기 없애기, 분리수거 등을 체험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이 후원금은 최근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지역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쌀을 전달하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해 12월부터 NH농협은행 서울본부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부금 3억3천300만원을 사용해 취약 계층의 복지를 위해 펼치고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됐다.

문중호 관장은 "NH농협은행,

중구산악연맹 고화선 신임회장 취임

고화선 회장 "소통통해 자랑스러운 중구산악연맹 만들 터"

중구체육회 소속 중구산악연맹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29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국회의원),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 윤관오 부의장, 이정미 송재천 조미경 손주하 소재권 허상우 양은미 의원, 경화수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중구체육회 임원, 종목별 회장, 중구산악연맹 동호인, 내빈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흥철 중구체육회장은 고화선 신임회장에게 회장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임 고화선 회장은 이임하는 최교수 전임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감사함을 전했다.

고화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봄 햇살 가득한 3월에 중구산악연맹 회장 취임식을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후보들과 시·구의원, 체육회 임원과 동호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중구산악연맹 취임식에서 고화선 회장이 내빈들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

그는 또 "산악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눈과 마음까지도 건강해지는 특별한 종목"이라며 "지금 비록 5개 클럽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중구산악연맹 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중구산악연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교수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생활체육은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회장을 잘 보필해서 멋진 산악연맹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흥철 중구체육회장은 "고화선 신임회장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것 같다"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중구산악연맹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속깊은 사람들은 산을 매우 좋아 한다"며 "중구산악연맹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잘 못타지만 중구산악연맹 회원이 되겠다"며 "예산지원을 통해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유흥길 산악인은 영상축사를 통해 "중구산악연맹 고화선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맑은 정신과 강한 체력을 단련하는데 등산만큼 좋은 것이 없다. 앞으로 중구산악연맹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연 대표기자>

NH농협은행, 중구장애인복지관에 기부금

남대문금융센터와 함께하는 희망·사랑·행복 나눔 기부금 270만원 전달



강재서(중) NH농협은행 남대문금융센터장이 문중호(좌) 관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뒤 박영한(우) 시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박영한 의원 등 다양한 분들께서 우리 복지관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후원해

주신 금액은 중구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연 대표기자>

남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중구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남산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구와 남대문 경찰서가 합동으로 시행한다.

집중 단속 구간은 남산 케이블 카와 백범광장 일대(소파로·소월로)이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단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현수막을 통해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인근 주차장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문당 기자>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넙니다

